

## 2 교양과 교양인의 세기속의 대학과 아카데미(하)

이 광 주  
인제대 사학과 교수

### 1. 아카데미시대의 도래

아카데미의 역사는 고대로  
마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교적인 모임을 다양하게 즐겼  
던 로마의 상류 사회에 있어 문  
예나 학문을 둘러싸고 학식자나  
그 호사가들의 모임이 없지 않  
았으리라 쉽게 짐작이 간다. 그  
러나 '아카데미'를 지칭한 최초  
의 단체는 1474년경 로렌초 데  
메디치에 의해 피렌체에 만들어  
진 '아카데미아 플라토니카'  
(*accademia platonica*)가 최초  
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운

#### 지성사상의 대학과 교수상

1. 중세의 방랑교사와 그 후예들
2. 교양과 교양인의 세기속의 대학과 아카데미(상, 하)
3. 이데올로기시대의 개막과 대학
4. 베를린 대학과 아카데미 쿠스
5. 다원적 대학과 교수의 천의 얼굴

동의 최대 후원자로서 미켈란젤  
로와 그밖의 많은 예술가의 파  
트론인 로렌초가 뒷받침한 휴머  
니스트들의 모임으로서, 정기적  
으로 로렌초의 빌라에서 회합을  
가졌다. '아카데미'의 호칭은 그

휴머니스트들이 플라톤주의를  
지향하였던 까닭에 플라톤의 옛  
학원이었던 '아카데미아'의 명칭  
을 딴 것으로 짐작된다.

'아카데미아 플라토니카' 이외  
에도 15세기에는 14개를 헤아  
리는 아카데미가 '꽃의 서울'의  
여기저기에 있었으며 자유로운  
르네상스의 세기속에서 철학자,  
시인, 변론가, 정치가, 법률가,  
의사 등 교양인들은 문학서클과  
각종 결사를 만들어 담론의 즐  
거움을 나누는 데 열중하였다.  
그리고 아카데미아 플라토니카  
는 플라톤 연구에 있어 피렌체  
대학보다도 앞섰다.

그런데 훗날의 프랑스와는 달  
리 이탈리아의 아카데미 회원의  
대다수는 대학인이었다. 그들은

중세적인 대학의 침울한 분위기와는 판이한 자유롭고 참신한 아카데미에서 학문하는 환희를 맛보았다.

“오! 아르카다아의 동료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르네상스에 이어 유럽의 16, 17세기는 아카데미의 시대였다. 많은 아카데미를 낳고 그 발전을 조성한 것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비롯된 고전 인문학의 보급과 근대적 자연과학의 대두였다. 고전을 탐구하는 휴머니스트와 과학자들이 대학을 외면하고 아카데미에 모인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거니와, 특히 당시의 대학이 새로운 지적 흐름—플라톤 철학과 근대적인 과학—을 외면하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중세적 학풍을 구태의연하게 고집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에 이르러서도 유럽 대학의 메카는 옛과 다름없이 신학부 중심의 파리 대학이었다. 노트르담 대성당 가까이 그 그림자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파리 대학은 재정적 어려움과 학부간의 내분이 극에 달하여 봉건 유제로서의 특권에 매달리는 데만 급급하였다. 그리고 학위 매매가 다반사가 되는 등 도덕성도 땅에 떨어져 많은 컬리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부터도 외면 당하였다.

17세기는 절대주의 체제 아래

전문적인 사법—행정 관료 집단이 형성된 시대로 대학의 중심이 신학부로부터 법학부 중심으로 옮겨진 세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파리 대학의 경우 그 침체는 법학부에서 가장 극심하여 교수가 학부 전체를 통해 단 한 명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파리 대학에서는 시민법이나 프랑스법의 학습과 연구를 금지하는 지난날의 시대착오적인 규약을 지키며 교회법만을 가르쳤다. 이러한 파리 대학이 새로운 과학의 태동에 대해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외면하고 적대적이었음은 오히려 당연하였다고 할 것일가.

세기의 새 지적 흐름을 대표한 데카르트 철학과 파리 대학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데카르트 철학은 독일 대학에서의 칸트나 헤겔의 철학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대학과는 전혀 무관하게 형성되었다. 그것은 세상에 알려지자 얼마 안 가서 학계와 문예계는 물론 사교계에까지도 침투되어 문자 그대로 데카르트의 세기를 낳았다. 그러나 파리 대학을 비롯하여 프랑스의 대학들은 모국이 낳은 이 최초의 근대적 사상 체제에 대해 공공연한 적의를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그에 관한 논의를 금지하는 한편 소르본느는 데카르트 철학의 학습을 프랑스 전역에서 금지하도록 파리 고등법원에 제소하였다. 시대의 새 지

적 동향에 관심을 나타낸 일부 교양학부 소속 교수들의 관심에도 아랑곳없이, 데카르트는, 국가 권력에 뒷받침된 소르본느의 의도대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소르본느의 후견지는 전통적으로 로마의 교황청이었으며, 속권은 일반적으로 사상의 검열이나 탄압 따위에는 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왕후는 세지적 운동에 대해 최상의 파트너임을 자랑해 왔다. 그러나 당시의 왕권은 데카르트 철학이, 때마침 태동되고 있었던 전통적 유럽 의식—왕조적 봉건체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 하여 온—의 위기 상황의 한 기폭제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데카르트는 18세기에, 즉 그의 혁신적 의미가 퇴색된 시기에 이르러서야 대학에 받아들여졌다.

인간의 심성과 미적 정념을 주제로 삼는 문학도 과학이나 새로운 철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으로부터 등한시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러나 시인에게 대학의 강단이 주어지지 않았음은 철학자나, 특히 과학자의 경우와는 달리 낭만주의적 아이러니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쩌면 천만다행이었을는지 모른다. ‘라블레교수’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 시인이 정중히 대학에 초빙받게 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으니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들은 1857년에 모교인 옥스퍼드의 ‘詩學 교수’(professor of poetry)로서 강당에 서는

매슈 아놀드에서 기억한다.

문인과 철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은 대학 밖에서 그룹을 형성하였다. 그대는 대개가 상류사회 출신으로서 원래는 살롱 혹은 커피하우스를 무대로 그들의 지적 우위를 돋독히 하여 왔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는 바로 살롱을 모체로 하면서 탄생되었다.

## 2. 아카데미 프랑세즈-그 '不死身'들

1635년에 성립된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곤라르 가(家)의 살롱이 발전하여 성립되었다. 그 창시자로 알려진 곤라르를 비롯하여 그 주요 멤버들은 대개가 당시 '에스프리의 집'으로 이름 높았던 랑부에 부인의 살롱의 단골이었다.

17세기는 또한 살롱의 시대이며 파르론의 시대이다. 우아하고 교양있는 귀부인에 의해 마련되는 살롱에 초대받는 인사들은-그들은 귀족, 정치가, 실업가, 고급장교, 법관 및 문필가, 과학자, 변호사 등 자유직업인들로서 각계의 엘리트층이었다-예절과 품위를 소중히 하며 지적 담론을 즐긴다. 才女住人の 미소가 그치지 않는 살롱에서는 신과 형이상학의 문제에서

부터 여인의 모드에 이르기까지는 논의와 화제에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어렵고 무미건조한 주제일지라도 부드럽고 명쾌하게 표현되어야 하였다. 그들 모두는 현학적인 것을 혐오하여 전문적 용어나 사상의 체계화까지도 경계하였다. 프랑스 문화를 특징짓는 '사회성'과 '사교성'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무궁무진한 관심이 우아하고 예절 바른 사교적 표현의 미덕을 제일로 함을 일컫는다.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창립에 뒤이어 1666년에는 콜베르의 비호 아래 '과학 아카데미'(académie des sciences)가 출범하였다. 자연과학의 연구는, 르네상스 이래의 진보의 관념과 낙관주의에 채색된 근대적 인간의 탐구에의 정념과 결부되어 바야흐로 세기의 지적 운동의 핵심을 이루었으니 자연과학의 아카데미는 16, 17세기에 유행처럼 생겨나고 유럽의 주요 도시는 적어도 하나의 과학 아카데미를 갖게 되었다.

과학 아카데미도 원래 과학 연구에 뜻을 두거나 그에 관심을 지닌 상류 계층 출신의 소수 그룹에 의해 이루어진, 한 아카데미가 모체가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과학 아카데미는 여러 영역의 엘리트층을 망라한 아카데미 프랑세즈와는 달리, 원래 상류 출신으로 프랑스 중산주의 정책을 수행한 콜베르의 뜻에 따라, 처음부터 일류 과학자로

구성되고 국가가 요구하는 프로젝트의 연구에 전념하는 전문성이 강한 연구 조직체였다. 그리하여 그것은 콜베르가 작고한 뒤에도 왕실의 자문 기관으로서 砲術用的 역할, 궁정 정원 폭포의 水力學 등 실용적인 과제가 과해졌다. 이렇듯 프랑스의 아카데미는 영국에서와는 달리 대체로 정부의 기관으로 만족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 아카데미는, 종래 대학의 침체를 비판하여 온 프랑스혁명 이후 혁명정부에 의해, 프랑스 전체의 과학자 집단 위에 군림하는 국립연구소와 같은 것으로서(아카데미라는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과학 행정과 심지어 대학의 인사에까지 간여하였다.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을 '아카데미시앙'이라고 한다면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은 오히려 '아카데미스트'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를 모델로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협회(지금의 막스 프랑크연구소)가 설립되고 모스크바의 과학 아카데미, 그리고 그것을 모델로 한 북경의 中國科學院도 본래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를 모범으로 한 것이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관해 좀더 살펴보자. 동 아카데미는 프랑스어의 순화와 향상을 목적으로 표방하면서 출범하였다. 그리하여 그 첫번째 과업으로 프

랑스어의 표준 사전인 『아카데미사전』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사교적인 살롱을 모태로 하면서 루이 태양왕의 세기의 연출자이며 프랑스 절대주의의 완성자인 리슈외에 의해 정식으로 발족된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1789년 혁명 직전의 위기적 상황에 지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 한 예로서 라 브뤼에르는 그의 입회 연설에서 루이 14세를 찬미하여 체제의 비판세력으로 부각되고 있었던 철학자(계몽사상가)들의 빈축을 샀다. 이미 철학자인 폰트넬, 몽테스키외 등이 아카데미 회원으로 이름을 걸고 있었으나, 뒤클로와 달랑베르의 영향 아래 철학 논문이 아카데미에서 발표되고 낭독되면서부터 그 낡은 상아탑에 신선한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특히 1760년 ‘옥좌와 재단을 똑같이 뒷집에 놓은 오만한 철학’을 공격한 드퐁피리앙의 입회 연설이 볼테르, 모틀레를 격분시키면서 지식사회의 여론은 철학자의 편으로 기울었다. 그리하여 1760~70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15회에 걸친 회원 선거에서 9회까지 철학자가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 철학자는 이제 마치 ‘오네통’의 모임과도 유사하였던 아카데미에서도 다수파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야만스러운 압제자’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아카데미에서도 울려나왔다. 그렇다고 아카데미 프랑

세즈는 1789년 전후 과연 혁명적이었을까.

『백과전서』의 편집인이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종신 서기(회장)인 달랑베르는 아카데미에서의 귀족과 철학자의 동석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겼다. 즉, 그는 좋은 취미와 세련된 말의 왕국의 주민과 지적 엘리트의 유대를 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사실 아카데미 회원의 자리는 그의 출신에 상관없이 귀족에도 비길 영예로운 최고의 지위를 의미하였다.

문필가의 세계에는, 수도원의 위계질서를 본받아 엄격한 서열로 차별되는 대학인의 사회와는 달리, 서열이나 위계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인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앙상-레짐 아래 대부분의 프랑스 문필가들은 가난에 시달려야 하였다. 로버트 단턴에 의하면, 문인 융성의 그 계몽의 세기 중엽에, 자기의 생활을 전적으로 펜에만 의존할 수 있었던 저술가는 디드로 한 사람뿐이었다고 한다. 그 무렵만 하여도 ‘직업적인 작가’로서 자타가 인정한 문필가는 30인을 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들 자유로운 문필가들의 가난은, 그래도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교양학부의 교수보다도 더 심각하고 불안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당시 프랑스에는 지봉 밀 5~6층 방(당시 빈부의 척도는 어느 구역에 거주

하느냐가 아니라 건물의 몇 층에서 기거하느냐에 달려 있었다.)에서, 인쇄될 가망도 없이 허기를 참으며 원고를 써야만 했던 많은 서푼짜리 문사들이 우굴거리는 반면에, 특권을 누린 지식인(mandarinat)이 또한 존재하였다.

한때 루이 14세의 시종이었던 볼테르의 생애가 말하여 주듯이 엘리트에 속한 철학자들은 궁정에서의 직위나 상류사회의 명예직에 몸서도 연연하였다. 그리고 아카데미 회원 자리야말로 문인과 철학자가 오르기를 바랐던 영예의 최종 계단이었다. 아카데미의 회원에게는 영광과 함께 싹가 또한 보장되었다. 즉, 회원록에 이름이 오르는 순간 그는 국왕의 연금 수급자가 되며 출석 수당으로 1천 8백 리브르(1786년 당시)를 받는 동시에 회원직에 수반되어 주어지는 연금·홍행 검열관 포스트의 보수로서도 연 3천 7백 리브르의 수입이 주어졌다.

그런데 폰트네르, 듀크로, 볼테르, 달랑베르 등 초기 계몽주의의 거목들은 결혼하지 않았다. 아직도 가정 생활과 글을 쓰는 생활은 양립될 수 없다는 중세풍의 통념이 그런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물론 몽테스키외, 드르락, 엘베슈스와 같은 귀족 출신 철학자들은 그 패턴에 속하지 않는다. 신분이 낮은 문인들은 애인을 갖든가, 부와 지위를 손에 넣은 50세가 지나서

야 결혼하였다. 그리고 디드로나 루소는 그들 자신의 출신 계층에 속하는 점원이나 하녀와 결혼하였다.

아카데미의 폐지를 앞장 서서 요구한 란쥬이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아카데미와 그밖의 문학 단체는 자유로와야 하며 특권을 지니서는 안 된다. 어떠한 보호이건, 그 보호에 의해 단체를 권위적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宣稱 길드가 되어버릴 것이다. 특권을 지닌 아카데미는 언제나 문예의 귀족을 낳는 온상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아카데미를 흉내 내어 18세기에는 프랑스 여러 도시에 아카데미가 많이 출현하여 학식자나 문인과 더불어 귀족, 성직자, 사법관 등 지방의 상류층이 그 회원이 되어 사교 클럽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은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선망의 눈으로 보았다. 영국도 그것을 본받아 만들고자 논의를 계속하였으며 베를린에도 1700년에, 스페인 왕립아카데미는 1713년에 그리고 유럽 문화의 오지인 러시아에도 1725년에 아카데미가 만들어진다.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다른 어느 조직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위와 명예를 획득하면서 서서히 의식화하였다. 그리고 종신, 그 권위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40인의 회원은 ‘불사신’으로 일컬어지고 입회식 및 신회원의 입

회연설(Éloge)은 전유럽의 지식사회와 사교계의 오랜 화제가 된다.

### 3. ‘로얄 소사이어티’, 과학의 개방

이제 우리들은 아카데미 프랑세즈와 더불어 그 명성이 세계적으로 드높은 영국의 ‘로얄 소사이어티’(Royal Society)에 관해 살펴 보자.

로얄 소사이어티의 기원은 16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많은 호기심에 찬 젊은이들이 런던의 한 선물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기로 정하였다. 그 중요한 멤버인 백작 집안 출신인 과학자이며 물리학자인 로버트 보일은 그 클럽을 ‘보일 없는 컬리지’(invisible college)라고 칭하였으며 그것이 로얄 소사이어티의 전신이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통하고 있다. 약 10명 정도이던 초대 회원들은 모두가 교양인들이었다. 그들은 대개가 전문적인 과학자라기보다는 성직자나 언어학자 혹은 의사들이었다. 그들은 “물리학, 해부학, 항해술, 靜力學 또는 여러 가지의 기술 그리고 자연과학적 실험 방법” 등 당시 등장한 신과학을 배우고자 모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컬리지’의 회원은 증가되고

모임은 명예혁명의 혼란을 피해 조용한 대학거리인 옥스퍼드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자 이 모임에는 대학 소속의 전문 과학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1660년 런던으로 돌아오면서 모임은 더욱 개방적이 되었다. ‘어떤 일정한 자격 기준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자유로운 젠트맨’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개방된 것이다.

그런데 로얄 소사이어티는 1662년 국왕 찰스 2세의 특허장(charter)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명칭이 시사하듯이, 영국 왕실에 의해 창립되었거나 그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니, 말하자면 왕실과는 무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소사이어티 회원의 대다수는 프로테스탄트이며 의회파로서, 국교도이며 왕당파에 속한 옥스-브리지, 특히 옥스퍼드의 보수적인 교수들과는 이 점에 있어서도 대조적이었다.

회원들의 포르테스탄트 정신은 영국에서 근대과학을 뒷받침하는 이념이 되었다. 그리고 왕당파로서 국왕과 의회 간의 정치 투쟁에 휘말렸던 옥스퍼드와는 달리 명예혁명시대에 소사이어티의 창시자들은 오히려 정쟁을 피하여 ‘자연과학적 태마’에 관해 논의함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여겼다. 그러나 회원과 그들의 동조자들은 정치·개혁과 자유신학에도 관심이 컸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산계급적 성격은 바야흐로 근대화를 지향하며 봉

전유제를 타파하는 과정에 있던 그 전환의 시대에 있어 기성 질서를, 특히 기성의 지적 체제에 비판적이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기성의 질서와 체제를 지적으로 대표한 것은 옥스-브리지였다. 이렇게 하여 아카데미 소사이어티는 갖가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적 풍토의 토대를 준비하였다.

소사이어티의 칭호가 말하듯이 그것은 아카데미 이상으로, 각계의 다양한 교양인의 클럽과 같은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명백하였으니 새로운 근대과학에 대한 관심과 탐구였다. 이상과 같은 로얄 소사이어티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 歷程을 따라 더듬어 보자.

로얄 소사이어티는 처음부터 자연적 지식의 증진을 위한 협동자의 모임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 회원에는 과학자와 함께 귀족, 정치가, 성직자 및 시인 등 과학과는 무관한 아마추어적 호사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초대 특별회원 96인 가운데 14인은 귀족이었으며 18인은 의사였고 5인이 신학 박사요 2인은 주교였으며 그 나머지 많은 회원은 상인 혹은 사업가였다. 과학자는 전체 회원의 3분의 1도 채 못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학자의 모임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실험과학에 관심을 갖고 장차 과학이 펼쳐보일 새로운 전망에 호기심을 지닌

아마추어들의 모임이었다. 클럽과도 비슷한 이러한 실정은 18세기에도 변함이 없었으며, 특히 재정적 이유로 귀족을 회원으로 반기는 경향이 있었다.

로얄 소사이어티와 관련하여 어느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날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오랜 훈련과정 속에서 성장해 온 인사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개입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것이 공식적인 경로보다도 오히려 자유스러운 방법을 통해 탄생됨을 경험에 의해 알 수 있다.”

“우리는 귀중하고 희귀한 것들이 일상적으로 주어진다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것은 학자의 손에 의해서보다도 工房이나 상인의 항해 혹은 농민의 쟁기질, 지주의 정원 등에서 이루어짐을 안다.”

로얄 소사이어티는 재능 있는 애호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협회를 위해 할애해야 한다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철회하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회원들은 더 이상 성직자나 스콜라 철학자들이 제기하는 명제들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추론보다도 스스로 참여하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자연의 비밀을 벗기고자 하였다. 그들은 말하자면 베이컨 학도였다. 실험에 의해 公理-定理을

도출하는 베이컨의 과학적인 귀납 방법론은 학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당시 학계를 흔들며 놓아 찬반양론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반베이컨파의 아성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대학이었다. 베이컨 자신도 당시의 대학에 실망하고 주저인 『뉴 아틀란티스』(1617)에서 솔로몬학원이라는 아카데미의 모델을 제시하여, 진정한 학문의 터전으로서의 아카데미의 출현에 기대를 걸었다. 사실 베이컨의 이념은 로얄 소사이어티의 지도 이념이 되었다. 그리하여 베이컨의 구상을 구현한 소사이어티와 대학간의 은밀한 싸움은 18세기까지 이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옥스-브리지에 관해 잠시 살펴 보자.

퓨리턴 혁명의 이데올로기의 근거지였던 캠브리지는 옥스퍼드보다는 덜하였다고는 하나 그 지적 수준은 똑같이 낮았다. 대다수의 교수들은 교직을 한직으로 여겼다. 그 배경에는 그들의 대부분이 1546년에 정해진 40 파운드에 지나지 않는 연봉을 받아야 했다는 저급한 처우도 작용하였다.

“학생들은 최종 학위 시험의 준비에 쫓기어 교수의 강의 따위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교실에는 나밖에는 아무도 없다.” 라고 술회한 근대사 교수도 있다. 신학의 교수들만이 예외였다. 그것은, 성직 서임 후보자(옥스-브리지 학생의 상당한

부분이 이에 속하였다.)에 대해 많은 주교가 신학 강의의 출석 증명서를 요구한 때문이었다. 강의는 여전히 중세와 다름없이 지적이기보다도 敎化的이었다.

아담 스미스는 당시의 대학을 ‘타파된 체게나 시대에 뒤떨어진 편견이, 세계의 다른 모든 구석으로부터 쫓겨난 뒤에도 그 곳에 피난처를 찾아 보호를 구하는 성역이라고 비꼬아 말한 바 있거니와 체스터필드卿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대학의 그리스어 교수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전혀 한직이며 거의 그리스어의 지식이 없어도 말할 수 있으며 아마도 지금 네가 지닌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여겨진다.”

이제 당시의 캠퍼스 풍속에 관해 살펴보자. 옥스-브리지에서 유명한 대식당에서의 정(正)찬은 지난날처럼 정규 사교장의 기능을 그만두었다. 정찬은 18세기 초에는 정오에, 1799년경에는 오후 2시반에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더욱 더 늦게 열린다. 그 메뉴에 관해서는 1840년대의 어느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간단하게 조리된 육과 야채, 맥주(마시고 싶은 대로) 그에 더하여 스프, 파이, 치즈-이것들은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더 주문할 수 있었다.” 정찬 때에는 교수와 학생이 다같이 정장하였다. 지정된 복장이 아닌 경우, 학생들은 컬리지長의 견책을 받

았다. 정찬 대신에 17세기에 출현한 커피 하우스가 점차 교수와 학생의 사교장이 되었다. “예배 뒤 커피하우스를 찾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거기에서는 대화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류의 신문-그 대부분은 런던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왔다.-을 읽는 데 시간이 소모되었다. 학생들은 뉴스에 굶주려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무시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커피하우스에는 서적, 잡지도 비치되고 음악이 취향이 있는 젠틀맨을 위한 악기도 손쉽게 대여되었다. 그러나 대학 당국은 커피하우스의 출입을 좋지 않게 보고 1750년에는 학생이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 즉 강의 시간대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였다.

대학사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관행’이 18, 19세기에 유행이었다. 교수가 학생을 아침 식사에 초대하거나 학생들이 서로 초대하는 일이 관행처럼 행하여졌다. 학생의 과외 활동과 레크리에이션으로 말하면 단체 스포츠 경기는 19세기 이전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학생 클럽 중에는 문학서클도 있었으니 그 태반은 사교적 성격의 것이었다. 부유한 학생들은 16세기에는 매사냥을 즐겼으나 차차 승마나 수렵을 즐겼다. 1760년에 발간된 『대학에 입학하는 품행 단정한 젊은이에의 조언』의 필자는 수렵에 시간을 낭비하기보

다도 공장이나 건축, 유적 등을 찾아 여러 곳에서 휴가 보내기를 권하고 있다. 가난한 학생들은 도보 여행을 하였다. 연극 관람이나 상연은 한때 대학 생활의 관행의 일부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도덕한 것으로 단정되어 옥스-브리지의 대학 당국은 두 도시에서의 공연에 대해 엄한 검열을 시도하였다.

이제 다시 로얄 소사이어티에 돌아가자. 대학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 만큼, 소사이어티의 회원들은 자부심이 더욱 강해 그들은 자기자신을 ‘배우고 탐구하는 세대’의 대변자로 여겼다. 1703년에는 종래 회원이던 뉴턴이 소사이어티의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새로운 과학의 개척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에 대한 탐구심이나 호기심을 지닌 사람들, 그리고 실용적인 목적이 주된 관심사였던 사람들. 회원들은 그들의 ‘本職’이 다양한 만큼, 그에 참여하는 목적과 뜻도 가지가지였다.

매마침 당시, 특히 교역과 항해에서 경제적 기업 정신이 싹트고 있어 그러한 영역에서의 실용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었다. 회원이든 혹은 그 후원자이든 간에 런던 상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 주제들(항해 기술의 개선, 경도를 측정하는 새 천문학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왕과 정부 역시 군사 기

술이나 상공업의 제반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니, 이 점에서 로얄 소사이어티는 옥스-브리지와는 대조적이었다.

이렇듯 로얄 소사이어티에서는 실용적인 관심사가 순수한 과학과 관련하여 큰 비중을 지녔다. 바로 이러한 실용적인 탐구 활동이 새로운 청교도 정신과 맞부딪쳐 켈트리층이든 도시 상인층이든 혹은 궁정에서든, 교양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과학과 그에 대한 관심사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로얄 소사이어티의 특별회원이 되거나 혹은 실험 장소나 기구를 제공함으로써 그 활동을 돕도록 요청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과학과 일상세계 사이의 거리가 좁혀진 것이다.

로얄 소사이어티의 개방성은,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에 처하였던 대학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갖가지 유대에 의해 옥스-브리지와 관련을 맺었다. 특히 두 대학의 수학과 물리학 교수가 임회를 원하였을 때에는 즉각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대학과의 협력은 우선 옥스퍼드와, 이어서 뉴턴이 소사이어티에 임회한 이후에는 캠브리지와도 협력 관계에 들어갔다. 당시 대학이 자랑하는 학자들은 소사이어티에 소속되기를 원하였다. 그만큼 로얄 소사이어티는 확고한

권위를 쌓아 올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소사이어티의 국제적 성격이다. 그것은 아카데미 프랑세즈와는 달리 처음부터 국제적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은 발족 뒤 얼마 안 가서 영국은 물론 서유럽 전역에 걸쳐 과학 정보 전달과 과학자들의 교류를 조성하는 중심 고리 역할을 하였다. 그 시기는 소사이어티가 비과학자 회원을 배제한, 즉 유럽에 전문과학 시대가 도래한 19세기였다.

#### 4. 프리드리히 대왕의 작품, '베를린 아카데미'

18세기에 창설된 아카데미 중에서 또 관심을 끄는 것으로서 우리들은 독일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에 의해 베를린에 세워진 '과학문학아카데미'(Académie des Sciences et Belles-Lettres)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베를린 아카데미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초빙을 받은 당대 독일 최고의 철학자이던 라이프니츠를 원장으로 그의 책임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프로이센 국가가 그러하였듯이 전적으로 프리드리히 개인의 작품이었다.

상쑤시의 철학왕은 이미 왕세

자 시절부터 편지를 통해 교분이 두터웠던 볼테르에게 아카데미를 만들고자 하는 그의 희망을 토로한 바 있었다. 페리클레스, 아우구스투스, 로젠쥬, 드메디치 및 루이 14세와 같은 학예의 현명한 파르론이라는 명성은 모든 유럽 제왕이 간절히 바랐던 소망이었다. 프리드리히는 그가 언제나 모범으로 삼았던 루이 14세의 왕국에서도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가장 빛나는 것으로 부러워 해왔다.

프리드리히의 구상에 따르면, 베를린에 초빙되어 아카데미에 좌석이 주어지는 학자나 문인들은 그의 또 하나의 계획인 귀족 학교와 그리고 프로이센의 행정 및 산업의 영역에서 크게 기여하여야 하였다. 이 계몽군주는 학문의 본질은 공익과 경제적 기술적 진보에 기승하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아카데미를 그가 이상적으로 그려왔던 계몽된 국가의 상징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아카데미 창립의 가장 큰 문제는 뛰어난 인재를 얼마나 베를린에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프리드리히는 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었으나 대학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특히 독일 문화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자주 공공연히 드러내었다. 그의 소망은 좋은 문장가가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고 쓰는 것은 프랑스어였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독어 책을 한 권도 보지 않았다.



내가 말하는 독일어란 마부 수준이다.”라고 그는 말한 바 있다.

프리드리히는 1740년 6월 프랑스의 천문학자 모페르투이와 여러 학자, 문인들에게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협력을 구하는 초청장을 보냈다. 모페르투이는 아카데미의 공용어가 프랑스어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초빙에 응하여 초대 아카데미 원장이 된다. 그러나 왕이 기대한 많은 인사들은 초청을 거절하였다. 볼테르는 애인 샤프레 후작부인을 위해 파리를 떠날 수 없었는데, 그가 원장 자리를 기대하며 프리드리히의 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10년 지난 뒤 후작부인이 죽은 직후였다. 독일 학자로는 드물게 프리드리히에 의해 할레 대학에 복직할 ch. 볼프에게 초청장이 보내졌다. 그러나 이 철학자는 베를린의 아카데미 회원이 되기보다도 소도시의 ‘야인 교수’의 길을 택하였다.

아카데미의 공용어는 물론 프랑스어였으며 회원의 절대 다수도 프랑스의 문인과 학자들이었다. 이미 왕은 궁정에서도 오래 전부터 프랑스의 궁정어나 문

인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니 그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베를린 아카데미는 계몽사상에 일관된 지적 연대의 관점에서 운영되었으며 회의에서는 강의, 토론, 보고 등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행하여졌다. 1743년 가을에 2~3주 동안 열린 회의에는 볼테르도 출석하였다. 그 후 아카데미는 순조롭게 발전하였다. 프리드리히는 총재로서 그리고 스스로 회원으로서 논문도 발표하고 기념 강연도 행하였다. 아카데미는 왕에게 당시 독일 최대의 문필가로 알려진 레싱을 회원으로 추천하였다. 그러자 왕은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으나 재가하였다. 7년 전쟁이 끝난 뒤의 왕의 최대 관심사도 아카데미였다. 모페르투이가 물러난 뒤 프리드리히는 후임 원장에 달랑베르를 지목하고 그의 뜻을 타진하였다. 디드로와 함께 『백과전서』를 편집하여 그 문명이 전 유럽에 빛난 이 계몽사상가는 원장직을 거절하였으나 왕의 초빙을 받아들여 쌍수시에 3개월간 묵었다.

아카데미는 10년 뒤에 파리의 아카데미 프랑세즈와 더불어 학

문의 센터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그리하여 외국의 뛰어난 학자들도 기꺼이 참가하였다. 독일의 뛰어난 학자 중에는 아카데미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인사도 있었으니, 그것은 때마침 학문의 자유를 내걸고 근대적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피팅겐 대학의 존재가 작용한 것이었다.

베를린 아카데미의 학문 연구는 수학, 자연과학, 화학 및 해부학 부문에서 돋보여 다른 외국의 아카데미에서도 손색이 없었으나 프리드리히의 설립 목적이었던 철학과 문학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래 문화의 오지였던 베를린이 점차 유럽 문화계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은 그 아카데미의 존재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

이광주/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연구하였으며 충남대와 전주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지식인과 권력』, 『유럽 사회 풍속산책』 등이 있다.